

<60대 남녀 헌신예배> 인도 : 정숙자 권사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도 김인모 장로 •특송 60대 남녀 회원들 •교회소식 김지원 목사 •성경봉독 황신숙 권사 욥23:10(구783p) •설교 박대성 목사 「섭리 신앙」 •봉헌기도 서분이 권사 •봉헌찬송 310장 •축도 박대성 목사	
---	--

- 열왕기상·하 - 김지원 목사	
< 아들람 하우스를 위한 기도 >	
•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쉼의 장소가 되도록	
• 아들람 하우스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 10/19(주일)	60대 남녀 헌신예배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뎃동산교회
• 10/25(토)	온가족새벽기도회	• 선교단체협력 : WEC, CP
• 10/26(주일)	추수감사주일 목장모임의 날	• 해외선교
• 10/27(월)~29(수)	신앙사경회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들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막4:35~41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찬송	물 위를 걷는 자, 432장, 545장 중 택1
설교말씀	“ 무서움을 두려움을 바꿀 수만 있다면 ”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 앞에 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의 본질을 알고, 두려워할 것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시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37-38절) 그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고 해도, 갈릴리 한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니,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데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서움”입니다.(40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배개까지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무서움이 발전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 힘들 때 내면세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삶을, 덮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지고, 당황스러움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무서움으로 변해갑니다. 그러곤 한계치에 다다르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마음 상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치에 이른 제자들의 상황에 예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39절) 예수님이 자연에게 명하셨더니,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41절에 ‘두려워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 무서움과 두려움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로이’와 ‘포보스’입니다. 전자는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칠 것에 대한 무서움, 즉, 눈에 보이는 무서움입니다. 반면, 후자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며, 가장 흔하게 번역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즉, 앞의 무서움은 상황에 지배를 받는 무서움이고, 뒤의 두려움은 주님께 지배를 받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과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깨어드니, 풍랑에 대한 무서움으로 지배를 받던 제자들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믿음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히11:1-2) 이 믿음이 더해지면, 눈앞의 풍랑에 대한 무서움이 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으로 인한 무서움을, 주님에 대한 경외심(두려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세상 무서움을 이기시고, 승리의 걸음 걸여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 앞에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가요?	
2. 데이로이와 포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무서움에서 두려움으로 변화되는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우리 삶 안에 경험되어진 무서움을 믿음으로 이겼던 일들을 나누어 보세요.	
2.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렸던 은혜들을 나누어 보세요.	

향기로운 예를	
십 일 조	강영선 김성호 김 욱 박새힘 박은유 서옥선 신라엘 신승준 양천식 이인승 정성광 조명자 황예강 황예슬 황예안 황현덕 황화남 무명3
감사헌금	강영선 권태환 김미숙 김선용 김 욱 김은호 김인수 김재영 김찬희 나영희 박보희 박정현 엄정임 윤병희 이보영 이영란 이영선 이윤진 이재홍 이종선 이호진 이효성 진영림 최진숙 한상무 황성국 황신숙 황점옥
선교헌금	권태환 김 욱 김찬희 박성애 박은희 서옥선 윤옥자 이보영 이종선 조명자 진영림 추경숙 황현덕
전도헌금	김종분 김찬희 박성애 서옥선 윤옥자 이보영 조명자
장학헌금	김찬희 박성애 박은희 신승준 윤옥자 이영준 조명자 추경숙
구제헌금	김 욱 김찬희 박성애 신승준 윤옥자 이보영 이영선 조명자
건축헌금	김 욱 김정술 김찬희 신승준 윤옥자 이보영 이봉엽 이종선 조명자 진영림 최진숙 황현덕
감사BOX	강미애 강영선 공은진 곽신열 김복순 김 욱 김인모 김인수 김종분 김지원 김찬희 김태순 김태한 김해든 김화숙 박보희 박새힘 박정현 박희자 백진대 서분이 서옥선 서희경 신광석 신백규 신원석 신윤경 양천식 유명희 윤경민 윤병희 이경아 이경화 이동현 이민주 이봉엽 이승현 이연전 이은영 이인승 이재홍 이정희 이주안 이주찬 전은경 정성광 조미숙 최라임 최은숙 최해관 최현우 표영숙 한병희 한상무 한찬홍 한혜주 황수향 황예강 황예슬 황예안 황점옥 황현덕 황화남 1여전도회
주일헌금	장년부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